

주한일본영사관의 개항장 관련 보고 『통상회찬』 한국편의 부산항 기록 소개

김연지*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국편 체제 및 내용 검토
- III. 부산항 관련 기록 소개 및 사료적 가치
- IV. 맺음말

I. 머리말

1876년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조선은 외국과의 통상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최근 개항기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던 조선시대 관찬서, 신문, 통계연보 등 관찬자료 외에도 일본측의 경제잡지 등 일본측 자료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¹⁾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 yeonji@pusan.ac.kr

1) 김동철, 『『大日本水産會報告』의 한국관련기사와 사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30, 2007. 차철욱, 『『東京經濟雜誌』의 한국관련자료와 사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30, 2007. 최원규, 『일본『東京經濟新報』의 한국관계기사와 對韓認識(1895~1905)』, 『한국민족문화』 30, 2007.

개항기 유통부문에 대한 연구는 이전과는 달리, 논문의 주제선택이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대상도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경향을 띤다. 그러나 아직 다양한 형태의 무역 상품과 그와 관련해 변화하던 조선사회의 유통, 생산구조의 해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²⁾ 본고에서 소개하는 『통상휘찬-주한일본영사관보고』 한국편(이하 『통상휘찬』)은 개항장의 외국과의 통상 관계, 상업,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본측 자료이다.

『통상휘찬』은 일본외무성통상국이 1893년 11월 30일 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본고의 분석 대상은 1차로 수집된 1903년 3월까지의 보고 기록으로 이 시기는 일본의 조선 침략 이후 식민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의 단계이다. 1차 수집된 『통상휘찬』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동경대학 등에 흩어져 있는 것을 김경태교수, 강만길교수, 안병직교수가 일본에 체재하면서 수집, 정리한 것을 모아 상호보완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으로 1987년 여강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³⁾ II장에서는 자료의 간행 및 내용 검토를 통해 일본의 한국 영사관 설치와 통상보고의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부산항 관련 기록을 통해 식민지 운영의 준비단계에 있어서 주요항구 상업 정황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상휘찬』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한국편 체제 및 내용 검토⁴⁾

2) 하원호,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1997, 81쪽.

3) 『통상휘찬』 한국편 해제, 1987, 1쪽.

4) 김연지, 「『통상휘찬-주한일본영사관보고』 한국편의 체제 검토와 사료적 가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2016의 것을 정리, 참고한다.

『통상휘찬』은 1893년 11월부터 1903년 3월까지의 주한일본영사관 보고를 엮은 것으로 10책, 259호, 1,104건으로 되어 있다.

1~15호는 월 1회, 16~65호는 월 2회, 66~163호는 월 3회, 164~217호는 월 2회, 218~259호는 주1회 간행되었다. 간행 횟수가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하는 것은 통상업자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 충족과 일본 대외 무역의 관심이 매우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통상휘찬』의 내용은 주로 상업, 농업, 화폐, 잡부로 구성되어 있고, 호를 거듭할수록 그 내용의 폭도 넓혀 각 부문별 항목도 늘어나고 있다. 항목에는 그 외에도 공업, 관세, 교통, 수산, 광업, 이민, 부록 등이 있다.

<표 1> 『통상휘찬』의 지역별, 주제별 분류 일람표

	상업	농업	교통	수산	화폐	공업	광업	관세	부록	잡부	합계
부산	146	5	2	1	6	3				7	170
원산	109	3	4	3	8			1		11	139
인천	118	2	3	1	1	1				2	128
목포	100	7	2	3	10	1				14	137
진남포	40	2	16		2					12	72
군산	28	1	2	2					1	6	40
마산	13	3	1							5	22
평양	20									8	28
성진	14									2	16
경성	98	4	3	1						9	115
인구	43										43
기타	33	25	13	35	7	2	6	1	15	57	194
합계	719	52	46	45	35	7	6	2	16	176	1,104

앞의 <표 1>은 『통상회찬』의 한국 관련 기록을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지역은 일본영사관 주재 개항장 및 그와 밀접한 지역, 해안, 邊境 등과 관련된 곳으로 가장 먼저 개항한 부산에 관한 기록이 146건으로 가장 많다. 주제 분류로는 상업이 719건으로 가장 많다. 부산항이 개항한 지 17년 후인 1893년부터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고, 그 중 상업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의 식민지 운영에 대한 준비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각 개항장의 商況에는 당월, 전월, 전년도 당월의 비교, 수출입액, 수출입화물의 원가, 수출입 중요품의 商況이 주를 이룬다. 또한 무역연보에서는 수출입, 선박 및 관세, 화폐, 어업, 호구 및 내지행상, 우편, 전신, 선박 및 관세, 일본인 거류민 영업표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각 항의 商況 보고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더욱 상세하게 다룬다. 인구 및 호구표는 7책 121호에서 개항장들을 모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전의 인구에 대해서는 각 년도 무역연보의 마지막 부분에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통상회찬』은 각 호 이외에도 부속, 부록, 호외, 임시증간 등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부속, 부록, 호외, 임시증간의 구성

책	호	계재란	제목	계재일	분류
1	1	부속	경기도, 충청도 지방상황 및 농황시찰보고	1893.12.20	잡부
1	1	부속	경(성)이북경기도 및 황해도의 농산물경황	1893.12.20	잡부
1	1	부속	황해도 황주 이북 평안도 남부 및 황해도 서해안지방의 경황	1893.12.20	잡부

1	2	부록	조선국 중부지방 商況 시찰보고	1894.3.16	잡부
1	8	부록	1893년 인천항 商況 연보	1895.5.1	상업
4	48	호외	1895년 원산항 商況 연보		상업
4	52	호외	1895년 경성 商況	1896.11.2	상업
4	55	호외	1895년 인천항 商況 연보	1896.12.15	상업
4	55	호외2	1895년 부산항 무역 연보	1896.12.15	상업
5	86	호외	1896년 부산항 무역 연보		상업
5	93	호외	1896년 원산항 商況 연보		상업
5	93	호외	1896년 경성 商況 연보		상업
5	93	호외	1896년 인천항 商況 연보		상업
8	187	호외	1899년 목포 무역 연보	1901.3.25	상업
10	231	임시증간	1901년 진남포 무역 연보	1902.9.29	상업
10	231	임시증간	1897년 군산 무역 연보	1902.9.29	상업
10	231	임시증간	1901년 성진 무역연보	1902.9.29	상업
10	231	임시증간	한국 경상도 남안 어업정황	1902.9.29	상업
10	231	임시증간	한국 함경북도 각지 상황	1902.9.29	상업
10	231	임시증간	한국 경상남도 시찰 북명서	1902.9.29	상업
10	241	임시증간	1901년 인천항 商況 연보	1902.11.25	상업
10	241	임시증간	1901년 부산항 무역 연보	1902.11.25	상업
10	241	임시증간	1901년 원산항 무역 연보	1902.11.25	상업
10	259	임시증간	1901년 목포 무역 연보	1903.3.30	상업
10	259	임시증간	1901년 평양 무역 연보	1903.3.30	상업

전체 25건 중에 18건이 개항장의 商況이나 무역연보이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의 시찰보고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이 보고들은 대부분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한 호로 발행하기에 분량과 지면이 부족하여 따로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통상무역에 관한 자료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부속, 부록, 호외 등으로 증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10책의 경우를 보면 임시증간으로 간행되는 부분이 매우 많은데

그것은 1900년대 이후 수적, 양적으로 확대된 개항장과 일본의 각국 교류, 통상에 관한 정보량이 많아진 것이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고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보고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라 하기보다는 분량이 너무 많거나 기록의 시기가 잘 맞지 않아 따로 편성된 것이고 점점 더 통상에 관한 정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통상회찬』에는 復命書가 게재되어 있는데 타보고의 객관적인 자료 나열과 분석에 비해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특이하다. 다음 <표 3>는 『통상회찬』복명서 게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통상회찬』복명서 게재 현황

제목	게재호수	게재일	분류
조선국 충청도 지방 순회 복명서	2책 20호	1895.7.1	잡부
	2책 21호	1895.7.15	
조선국 함경도 북부 순회 복명서	2책 22호	1895.8.1	잡부
조선국 전라도 순회 복명서	2책 22호	1895.8.1	잡부
	3책 23호	1895.8.15	
조선국 북부 순회 시찰 복명서	3책 23호	1895.8.15	잡부
	3책 24호	1895.9.2	
	3책 25호	1895.9.16	
조선국 평양지방 재류본방인의 정황 시찰 복명서	3책 38호	1896.4.1	잡부
	3책 39호	1896.4.15	
한국 황해도 농상황 시찰 복명서	8책 187호	1901.3.25	부록
한국 경기 충청 양도 농상황 시찰 복명서	8책 187호	1901.3.25	부록
한국 경상도 시찰 복명서	9책 217호	1902.6.25	부록
	10책 231호 임시증간	1902.9.29	상업

복명서는 본 자료에 게재된 보고 중에 가장 방대한 양으로 한 호에 다 게재되지 못할 때에는 다음 호에 연결하여 게재한다. 복명서에는 각지 정황의 일반, 인구, 면적, 지세, 경제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으며 형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조선국 전라도 순회 복명서』는 1895년 5월 28일 재부산영사관보고에 의해 작성되어 22호, 23호에 게재되어 1895년 8월 1일, 15일에 간행되었다. 당시에는 목포 개항 전이었으므로 부산영사관이 전라도의 商況과 기타 지방의 狀況에 대한 조사의 명령을 받아 3월 7일 부산항을 출발하였다. 전라도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로 동학농민운동이 지방행정, 農況, 商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곧 개항을 맞이하게 될 목포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목포는 현재 실로 적막하여 주민은 농업을 유일한 직업으로 삼고 상업, 運漕業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1척의 渡船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은 없다. 종래 영산포에 왕래하는 공미선, 염선 등이 때때로 정박을 할 뿐이다. 그러나 수운이 네 방향으로 통하고 개항장이 된다면 갑자기 그 광경이 변하여 변화한 땅이 될 것이다. 목포 뿐 아니라 전라도 일체의 상업 등에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주로 석유, 철기, 도기 및 기타 수입 잡화와 같은 것은 신속히 그 판로를 확장하여 内外人の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부산과 인천의 무역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전라 일체와 충청 일반의 무역은 대부분 모두 목포에 흡수될 것이다.⁵⁾

해당 복명서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의 전라도 상황과 부산, 원산, 인천 다음으로 개항할 곳을 목포로 지목하여 그에 관한 시찰에 관한

5) 『通商彙纂』 3책 23호, 『朝鮮國全羅道巡廻復命書』, 1895.8.15. 34-45쪽.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제가 조선의 경제에 침투하기 위해 ‘목포’라는 지역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서 在京城 일등영사 內田定槌의 복명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1895년 1월 31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일제의 목포에 관한 관심, 욕심이 집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⁶⁾

이 외에도 여러 지역의 복명서를 통해 개항 이후 일제의 조선 지배에 관한 야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통상회찬』을 통상보고뿐 아니라 정치적인 정보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부산항 관련 기록 소개

1. 기록 소개 및 검토

공통 주제 이외에 주요 항구별 보고를 게재 건수가 많은 부산항, 목포항, 인천항의 순서대로, 『통상회찬』의 항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주요 항구별 보고 주제

지역 (건수)	주 제	분류
부산 (170)	조선목면·일본목면·잡미·외국수입쌀·맥분·일본청주·대두·燐寸의 현황, 부산항수산회사 경보신호계양의 건, 부산항 생우 수출정황	상업

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권, ‘三. 木浦甌浦大同江開港一件’, 1895.1.31.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jh_011r_0030_0030(검색일: 2020. 3. 23.).

	우역전염조사보고, 일본인 제조업, 생명보험업, 부산거류지내의 정황	잡부
	은화의 결핍, 수출 금급 경황, 부산통화 및 일본 지폐 유통 경황	화폐
	경작물 · 蠶種 · 맥작 · 插秧 · 우역 및 축우상황	농업
	철기 · 통류, 청주개량양조법, 한인용 공구	공업
	부산대구간 운반사정일반, 부산원산복판 한국기선항로 개시	교통
	부산항 부근 어업 정황	수산
목포 (137)	대맥, 일본산 식염의 수입, 우피수출 경황, 목포시장근황, 목포면 유자 試賣의 정황, 미곡 상황, 방적사, 석유, 내지상업의 근황, 도기관로, 해초류 상황	상업
	맥작, 미작, 농사근황, 미가 하락, 농작물의 충해	농업
	면작, 소학교 개설, 거류지경매의 건, 미곡출하 상황, 백목면의 경황, 일한상인취체법의 협정, 잡화상조합, 무역상단체의 성립, 해벽축조협약, 인구 및 호구표	잡부
	금융상황, 목포부산 시세, 은화, 한전, 지폐의 유통, 은행개업의 건	화폐
	명태어, 해초 상황	수산
	운수교통, 기선운임 低減	교통
	정미사업	공업
인천 (128)	청국미 수입, 물가폭등, 쌀 · 맥분 · 인삼 · 도기 외 8품의 정황, 수출 생우, 일본제지판로 상황, 인천항취인소의 미곡상황, 수입일본면물, 수입석탄 · 기용유, 수입제목상황, 인천동양연초회사의 설립과 그 제품 매매의 상황	상업
	大阪-인천의 화물운임의 인하, 인천-함경도 정기항해개시, 인천-용산 항업의 현상	교통
	농작근황	농업
	분방수입의 전망, 잡황	잡부
	통화사정	화폐
	분방어업선 증가	수산
	仁川紙卷煙草會社의 설립	공업

부산항 다음으로 기록이 많은 것은 목포항인데 그것은 목포에서 산출하는 곡물과 우피와 같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건이 모두 부산으로

수송되므로 목포에 개항장을 설치한다면 내외 화물의 집산지가 되며 전라도 연안의 해상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을 위해 매우 편리한 것이라 생각하여 목포개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기 때문이다.⁷⁾ 일본은 추가 개항장 건설을 목포로 계획하고 있었고 마침내 1897년 목포개항 이후 재목포영사관은 商業之部, 農業之部, 잡부에 걸쳐 미국과 우과의 상황, 근황 등에 대해 보고를 폭발적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목포는 貨幣之部に 속한 보고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은데, 5~9권까지 거의 일 년에 한번씩 금융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융 상황에 대해 많은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과 일본 간에 상품 유통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화폐의 불일치에 대해 일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목포항의 기록과 부산항의 기록을 연계하여 당시 시대상을 파악하면 무역, 유통,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에 관한 보고는 전체 128건 중에 상업이 118건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기록이 商況, 무역연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은 부산과 같은 조선-일본간의 독점적 무역시장과는 달리 청국,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의 열강과의 무역 관계가 깊다. 부산이 경상, 전라지방의 무역을 매개하는 것이었다면 인천은 경기, 충청, 황해, 평안도 지방의 수출입 화물을 집산할 뿐만 아니라 청국의 각항과 무역상의 관계를 가진 시장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⁹⁾

다음 <표 5>는 기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산항 관련 기록을 연도별로 파악해 본 것이다.

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권, ‘三. 木浦甌浦大同江開港一件’, 1895.1.31.

8) 『通商彙纂』 5책 86호, 1897.12.25.; 6책 108호, 1898.8.28.; 6책 109호, 1898.9.8.; 7책 121호, 1899.1.; 8책 158호, 1900.2.8.; 9책 210호, 1902.3.10.

9) 조한보, 『개항후의 인천항 무역동태-강화도조약 체결에서 한일합방까지-』, 『畿甸文化研究』 1, 1972, 52쪽.

<표 5> 부산항 관련 기록 연도별 게재 현황

연도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합계
건수	2	17	17	20	27	30	33	10	5	8	1	17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항 관련 기록은 1899년에 33건으로 가장 많다. 본고에서는 7책에 수록된 1899년 부산항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1899년(7책) 부산항 관련 기록 현황

분류	제목	게재 호수	건수
상업	부산항 生牛 수출 정황	121, 123, 124, 127, 129, 135(2), 140, 146, 148, 152, 154	12
	부산항의 商況	122, 124, 130, 132, 134, 139, 141, 143, 148, 149, 152	11
	무역연보(1898년)	134, 136, 138(연재)	3
	부산항 무역 호황	148	1
	부산항 수입 일본 청구 정황	149	1
	부산항 대두 무역 근황	155	1
	부산항 일본 목면 근황	155	1
화폐와 금융	목포, 부산 두 지역 시세 차이	121	1
	부산의 한국통화 및 일본 지폐 유통 경황	155	1
교통	부산, 원산 및 북관(北關) 간 한국 기선 항로 개시	130	1
기타	재류 일본인 호구 및 영업표	121, 123, 126, 128, 132, 135, 137, 141, 144, 147	10

<표 6>은 부산항 관련 기록이 가장 많이 게재(33/170)된 1899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타는 자료에는 <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항뿐 아니라 다른 개항장의 그것과도 함께 조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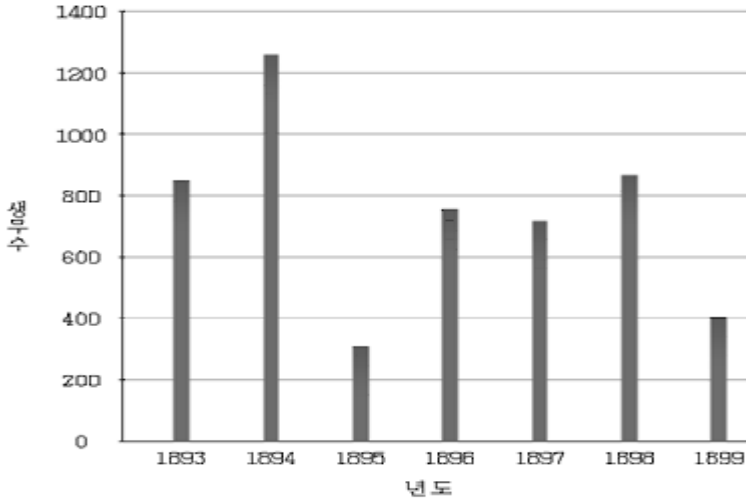
기록 건수에서 제외시켜 따로 분류하였다. 내용은 재류 일본인 호구 및 영업표이며 121호, 123호의 재류 일본인 호구 및 영업표는 1898년 11월과 12월의 일본인 거주 호수, 출생, 사망, 영업자, 한인 건물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그 중 거주 호수는 특이하게도 신분을 ‘사족’과 ‘평민’으로 나누어 남녀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때 재류 일본인 중 山口縣 출신이 월등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남녀 거주 인구수만 기록되어 있다. 재류 일본인 호구수는 『통상회찬』에서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 무역연보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 중에서도 부산항 생우 수출 현황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산항의 商況이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자료의 특성상 상업과 관련된 자료가 지배적이다. 상업 중 『무역연보』는 건수로는 3건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부산항 관련 게재 건수가 가장 많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부산항 生牛 수출 현황¹⁰⁾

『통상회찬』의 기록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생우’이다. 19세기 후반 대일무역의 구체적인 양상을 『통상회찬』한국편의 부산항 자료에서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생우 현황’ 보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다음 그림은 ‘생우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부산항의 생우 수출은 그 양이 일정치 않으며 그 폭도 매우 넓다. 이는 생우의 수출량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수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894년에 수출량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청일전쟁과 관련이 깊다. 『통상회찬』의 재부산영사관보고는 조선 생우의 가격이 오르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10) 김연지, 「1890년대 부산항 생우 수출의 일본 수출-『통상회찬』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3, 2016을 참고한다.



<그림 1> 부산항 생우 수출량

우역으로 인해 조선소의 수가 감소하기도 하지만 1894년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살되었던 소가 상당수에 달하였음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¹¹⁾ 그 후 매년 일본으로 수출하는 생우의 수가 감소하고 생산되는 조선 생우의 양이 일본 구매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결국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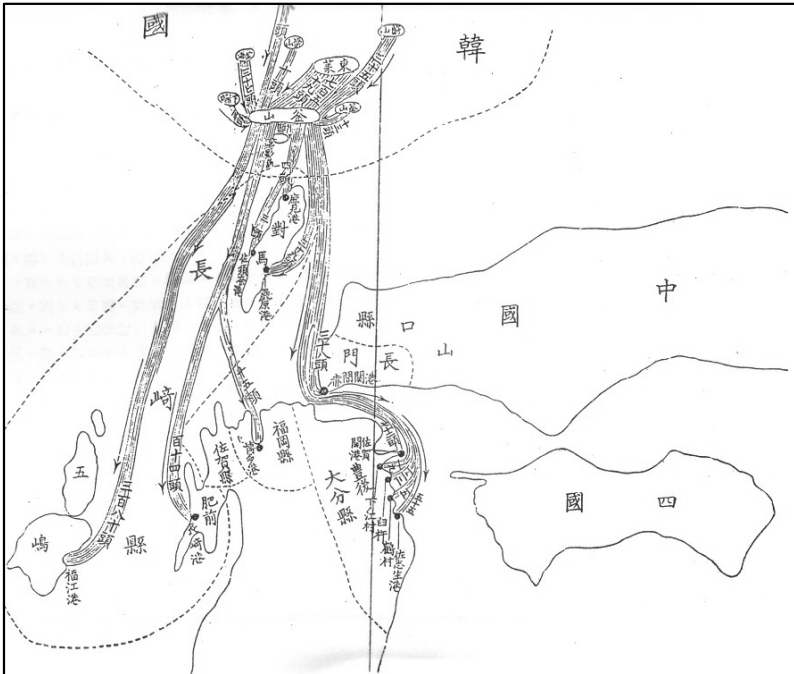
조선 농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인 소를 일본 농가가 선호하는 이유는 일본산에 비해 골격이 좋고 성질이 온순하여 勞役을 시키기 좋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농가는 소를 경작용으로 키워, 모를 심을 때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로 3~5세를 선호하였다.¹²⁾ 즉, 조선소는 사육 및 관

11) 金敬泰 編, 『本年八月中釜山港生牛輸出情況(二十九年九月九日付在釜山領事館報告)』, 『通商彙纂』 韓國編 4, 驪江出版社, 1987, 180쪽; 『本年三月中釜山港生牛輸出情況(三十一年四月十四日付在釜山領事館報告)』, 『通商彙纂』 韓國編 6, 80쪽.

12) 『通商彙纂』 5, 『本年十月中釜山港生牛輸出情況(三十年十一月二十日付在釜山領事館報告)』.

리하는 부분이 일본소보다 다소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일본인의 수요가 증가하였다.¹³⁾

『통상회찬』에는 1898년 부산항 생우 수출의 系統 略圖가 첨부되어 있다.



<그림 2> 1898년 부산항 생우 수출 系統 略圖

이것은 당시 농상무성 고시로서 반드시 長崎港에서 검역을 실시하게 하여 수출소가 대부분 九州 지역으로 향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13) 『通商彙纂』 4, 「本年八月中釜山港生牛輸出情況(二十九年九月九日付在釜山領事館報告)」.

개항 이후 조선소의 일본 수출은 주로 조선시대 牛皮 무역, 일제강점기의 牛疫, 방역제도, 釜山輸出牛檢疫所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연구는 조선소 일본 수출의 구체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통상휘찬』을 통해 부산항 생우 수출과 관련된 보고를 분석할 수 있다. 수출소의 성별, 연령, 평균가액, 매입지, 구입지, 수출판로 등을 분석하고 수출 동향을 통해 수출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역’이라는 주제 속에서 한정되어 다루어졌던 조선소의 일본 수출에 대한 연구가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대일 무역의 시간적, 공간적 간극을 메우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산항의 商況

부산 1월 상황은 1899년 3월 27일, 7책 130호에 게재되었다. 총 분량은 8페이지로 다른 글들에 비해 꽤 많은 양이다. 내용은 수입부, 수출부, 거류지 일본인, 총호수 파악, 증감비교, 출입선박, 선박 승조인원 및 일본 선박 소재지에 대한 것이다. 수입부는 외국품, 내국품으로 구분하고 수출부는 수출입 중요품의 商況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있다. 대부분 전월대비 증감, 작년대비 증가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품목별 변동 추이도 확인하고 있다.

3) 무역연보

1899년(7책)에 게재되어 있는 무역연보는 전년도인 1898년의 부산항 무역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134호, 136호, 138호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각 17쪽, 17쪽, 10쪽의 분량으로 총 44쪽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양이다. 134호는 제1장부터 제3장, 136호는 제4장부터 제6장, 138호는 제7장부터 제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면의 부족으로 연재

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론
제2장 외국무역 및 연안무역
제3장 수출무역
제4장 수입무역
제5장 수출 각 물품 10개년 대조표
제6장 선박 및 관세
제7장 화폐 및 금융
제8장 어업
제9장 호구 및 내지행상
제10장 우편 전신

제1장 총론에서는 1898년 부산항의 수출입 화물 원가의 총계는 6,922,287원으로 1897년에 비해서는 286,404원 감소하였다. <표 7>은 수출입을 구분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7> 부산항 수출입 전년도 비교표

(단위: 엔(円))

	1898	1897	증감(△는 증, ×는 감)
수출 가격	3,677,786	5,855,926	× 2,487,053
수입 가격	3,234,501	3,862,765	× 628,264
수출입 총계	6,912,287	9,718,691	× 2,806,404
수출 초과액	443,285	1,993,166	× 1,549,881

위 표를 통해 1897년에 비해 1898년은 수출입 모두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98년 수출입 화물의 원가도 월별로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고 있다.

제2장 외국무역 및 연안무역에서는 무역액을 내외국으로 구분하여 각 항구에 세분화하여 1897년과 비교하고 있다.

제3장 수출무역은 부산항 수출액을 각지로 구분하여 표로 나타냈다. 조선품과 외국품 수출을 구분하여 일본, 청국, 러시아, 인천, 원산, 목포 수출액을 조사하고 그 수출액을 최근 10년간 통계로 대비하여 나타냈다. 부산항 수출 화물은 곡류, 해산물, 잡산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894년부터 1898년까지 곡물(쌀, 대두), 잡산물(砂金, 生牛, 牛皮, 牛骨, 계란) 수출액을 나타내어 표로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잡산물의 수출은 곡물 수출의 성쇠와 반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898년 수출한 조선품의 수량, 가액과 수출품 중 중요한 것의 商況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항목은 金地, 쌀, 대두, 맥류, 생우, 우피, 멸치, 해초류, 해삼, 말린 전복이다.

제4장 수입무역은 수입액을 최근 10개년간 통계로 대비하여 조선과 일본의 무역이 진일보하였다고 보았다. 제5장은 수출품을 10년 동안 대조하였고 제6장 선박 및 관세에서는 부산항 출입 기선, 범선의 수를 나타내어 전년도와 비교하고 기선의 소속회사 및 항로를 기재하였다. 이 외에도 제7장 화폐 및 금융, 제8장 어업, 제9장 호구 및 내지행상, 제10장 우편 전신의 모든 부분의 현황을 파악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월 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통상휘찬』 무역연보에는 가능한 한 표를 작성하여 모든 부분을 객관적인 수치로서 정리하고 있어 당시 부산항의 무역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2. 사료적 가치

『통상휘찬』한국편(1893년~1903년:1차 수집분) 부산항 관련 기록이 지니는 사료적 가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료의 양적·질적 증가이다. 영사관보고는 개항이후 1881년부터 일찍이 간행되어 왔지만 『통상휘찬』의 단계(1893년 11월)에 와서는 간행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양적인 면에서 매우 풍부해졌다. 『통상휘찬』(1893~1903년)의 조선 관련 기록은 1,104건, 부산항 관련 기록은 170건(기타 제외)으로 엄청난 양적 팽창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기 간행물로 매우 규칙적이며 게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보충하여 질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럽고 영사관들이 해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일반 통상업자들이 조사한 것보다 신뢰도가 매우 높다.

둘째, 『통상휘찬』은 개항 이후 조선의 외국 통상관계를 주로 다룬 것으로 개항장인 부산항의 상업, 농업, 화폐, 교통, 수산, 광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사하여 개항기 한일무역, 한국근대상업사·경제사 등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고 많은 분야에서 개항 이후부터 통감부시기 이전까지(1876~1905년)의 공백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통상휘찬』에서 압도적으로 보고 건수가 높은 항목은 상업이다. 특히 매월 개항장의 商況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각 개항장의 수출입 상품 유통을 나타내면서 다른 개항장,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산항의 무역연보나 호구수 및 영업표 등을 통해 당시 부산항의 구체적인 시대상을 파악하여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V. 맺음말

『통상휘찬』은 조선의 통상보고에 관해 기록한 것으로 개항기 경제사와 한일무역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하나의 개항장을 대상 공간으로 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이미 각 지역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개항기의 특성상 새로운 유통망과 상인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시스템과 상인들이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개별적인 개항장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항기의 전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개항장 또는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도 꼭 수행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작업은 개항기라는 상황 속에 각 개항장의 특수성(특징)을 파악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자료를 검토하면서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고 풍부하며, 각 영사관들의 외교적 특권을 배경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질적으로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근대경제사 연구에서 개항기라는 공백을 메워 근대경제사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는 한국사 뿐 아니라 관련 외국 경제사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상휘찬』한국편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부산항의 기록을 모두 검토한다면 19세기말 20세기초 부산항의 개항장으로서의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